

#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4호 | 2022년 10월

## 〈 차례 〉

1. 〈논단〉
2. 〈신임교원 기고문〉
3. 교수회 활동 보고
4. 신임교원 명단
5. 공지사항
6. 단과대학 평의원 명단

---

# 논단

## “교육혁신원의 새로운 시작을 기대하며”

김민희(교육혁신원 원장, 사범대학 교직부)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7월 8일 자로 교육혁신원 원장직을 맡은 사범대학 교직부 김민희입니다. 교육혁신원은 '교수학습개발센터, 교육성과관리센터, 비교과교육지원센터, 원격교육지원센터, K-MOOC 사업단, 교육혁신팀'의 하위 부서를 두고, 교수법 지원, 학습법 지원, 비교과통합관리, K-MOOC(DU-MOOC) 개발 및 운영 등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참여 인력(원장, 센터장, 연구중점교원, 연구원, 직원 등 포함)도 20여명이나 되는 큰 조직이며 전체 대학의 다양한 부서와 업무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과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로 2022년 2학기에도 많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많은 공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참여율이 낮고 교내 전체로 교수학습법 참여 문화가 형성되지 않아 교수님들의 참여와 학생들 참여 독려, 보다 발전적인 의견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보직을 맡은 이후, 2022년 1학기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 정리, 2022년 2학기 각 센터별 프로그램(사업) 추진계획 수립, 각종 평가 대비 사업 운영 논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대구대학교만의 특성을 담아낼 수 있는 교육혁신 모델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초에 발송한 [교육혁신원 9월 Brief]를 시작으로 자주 교육혁신원 소식도 알려드리고,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의견을 청취하면서 대구대학교만의 독자적인 교육혁신 모델을 개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대구대학교의 특색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공교육모니터링단] 보고서에 담긴 학생

들의 진정성 있는 의견들을 하나하나 실현해가려면 하루가 모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들이 뼈아프게 들어야 할 학생들의 고민들도 많습니다. 교수와 학생이 서로 소통하며, 의지하며,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혁신원의 역할이 크다는 책임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보다, 내실 있고 진정성 있는 운영이 더 의미 있음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는 구성원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늘 자랑스롭습니다. 수업 개선과 학생 지도를 위해 애쓰는 동료 교수를 자랑스러워하며, 민주적인 소통과 거버넌스 대학 문화가 살아있는 대구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육혁신원 원장 김민희 드림(내선번호 5430)

이 논단은 8월 20일자 포털 메일로 보내드린 '2022-2학기를 준비하며'의 내용을 바탕으로 수정·보완하였습니다.

---

# 신임교원 기고문

“나에게는 또 다른 도전,  
예비 선생님을 가르친다는 것”



안성호(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대구대학교에 임용되고 두 번째 학기를 맞았다. 지난 학기엔 전공 수업을 맡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집중했다. 내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내가 목표한 수준의 학업성취도를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어찌어찌 시험 성적의 분포가 정규분포를 따르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학생들과 함께 하는 방법을 파악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학기 수업을 진행해보니 노선을 조금은 다시 조절해야 할 것 같다. 나는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가 보다.

내가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바로 이 모든 학생이 “예비 선생님”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선생님이 된다면 어떤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 끊임없이 생각하는 때에 학생들은 나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르치는 모습에서 앞으로의 선생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릴지 모른다. 이런 점은 내가 그동안 받았던 연구자를 키우는 데 집중되었던 대학 수업과는 다른 방향의 수업을 계획하게 했다.

“내가 학생들에게 본보기가 되겠다.” 나는 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나중에 교단에 섰을 때 모든 학생을 책임질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한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도, 학습 진도를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좋은 선생님 말이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난 학기 초 “Teaching-Up 수업컨설팅” 모집 공고가 나왔을 때 주저 없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

했다. ‘어려운 천문학 전공 수업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진도 따라오기 벅차 질문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다. 수업 영상을 촬영하고 학생들에게, 그리고 전문 교수님에게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그 해답을 찾아가기에 충분했다. 여러 피드백이 있었지만, 출석카드를 활용해 학생들이 어려운 내용을 적어내게 하는 것은 내게는 획기적인 아이디어였다. 그래서 바로 이번 학기 ‘대기물리학’과 ‘천체물리학(2)’ 수업에 도입했다. 학생과 교수 사이의 소통구가 되어 어려웠던 내용을 다시 되짚어 주고 있다.

학생들에게 질문이 있으면 또는 상담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라고 끊임 없이 강조한다. 내가 알고 있어도 학생은 모를 수 있고, 위와 같은 말을 하지 않으면 학생은 나를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다. 내가 대학교 시절 한 교수님께서 “내 방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들어와도 괜찮습니다.”라고 말씀해주신 것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 나는 지금도 내 방문을 살짝 열어놓는다. 내가 안에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학생들이 내게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갔으면 하는 마음이기에 열린 마음으로 기다린다.

나는 학창 시절 만났던 좋은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 들어보지 못했던 ‘과학고등학교’라는 곳을 알려주신 담임선생님. 중학교에서 수학과 과학의 흥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수학, 과학 선생님. 고등학교에서 본인의 담당 과목을 풀지 했는데도 낙담하지 말라며 이끌어준 지구과학 담당 담임선생님. 아마 당시에 내가 성적에 낙담하고 꿈을 접었다면 천문학 박사라는 타이틀도, 지구과학 교육과 교수라는 타이틀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기에 나는 내 제자들도 학생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학생의 흥미를 북돋을 수 있는, 학생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한다.

면접 때 질문이었던 “진도를 못 따라오는 학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에 대한 나의 대답이 아직도 떠오른다. “수업에 뒤처지는 학생도 끝까지 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 끝까지 잃지 않기를.

---

# 교수회 활동 보고(2022년 7월~9월)

6월 20일 : 제13대 총장 선거로 박순진 총장 후보자 당선

7월 01일 : 법인, 박순진 총장 임명

7월 11일 : 교수회 성명서 발표  
“총장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7월 12일 : 의장단과 총장 면담

7월 12일 : 교수회 통신 제3호(2022년 7월호) 발간

8월 01일 : 교수회 성명서 발표  
“8월, 총장의 학교 경영은 ‘가시화’되어야 한다.”

8월 18일 : 교수회 의장 부산에서 개최된 사교련 임원단 대회에 참석

8월 22일 : 교수회 성명서 발표  
“총장은 학교 경영의 비전과 방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8월 25일 : 교수회 의장단 워크숍  
- 2022년 2학기 교수회 활동에 대한 논의

9월 21일 : 의장단과 총장 면담  
- 교수회 평의원회 참석 요청

9월 22일 : 교수회 간사 회의  
- 1학기 활동 보고 및 2학기 활동 계획

9월 26일 : 교수회 평의원회 개최  
- 총장참석 학교 경영에 대한 사안 질의응답

---

# 신임교원 안내

“환영합니다”

©2022년 3월 1일자 임용

성명	소속	초빙분야
김신영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이미란	정보통신대학 컴퓨터정보공학부	가상현실/HCI
이승주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
안성호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천문학
조성준	공과대학 신소재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전기에너지변환

©2022년 9월 1일자 임용

성명	소속	초빙분야
박광현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문헌정보학
최형문	조형예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제품디자인

# 공지사항

## (1) 각종 위원회 교수회 추천 위원

위원회	교수회 추천 위원
교무위원회	양진오(인문대학 문화예술학부/교수회 의장)
학과역량평가연구위원회	차정호(사범대학 화학교육과/교수회 부의장)
교원소속전환심의위원회	차정호(사범대학 화학교육과/교수회 부의장)
교원인사위원회	차정호(사범대학 화학교육과/교수회 부의장)
예산조정위원회	이가연(경영대학 경영학부/ 교수회 부의장)
기획위원회	황보각(재활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교수회 간사)
고충처리위원회	이기은(경영대학 경영학부/교수회 간사)
인권대책위원회	장진(조형예술대학 융합예술학부/교수회 간사)
편제조정위원회	정유정(정보통신대학 전자전기공학부)
전자게시물심의위원회	차경애(AI학부)

## (2) 대학평의회 교원 선거 안내

- 현 대학평의회 평의원 임기 12월 25일 종료
- 선거 규정에 따라 임기종료 30일 이전에 신규 평의원 확정 필요
- 10월 말~11월 초, 대학평의회 교원 평의원 선거 예정



# 단과대학 평의원

(2022년 10월 1일 현재)

단과대학	회원수	평의원	
인문대	29	김봉정(글로벌언어문화학부)	민성기(글로벌언어문화학부)
법·행정대	33	고상현(법학부)	김동신(행정학과)
경영대	43	김영주(경영학부) 정준희(경영학부)	김현정(호텔관광경영학부)
사회과학대	46	이소영(국제관계학과) 정소희(청소년상담복지학과)	노성향(아동가정복지학과)
과학생명융합대	34	황근보(빅데이터학과)	사공동훈(생명환경학부)
공과대	54	황인조(환경기술공학과) 이우성(조경학과)	이미령(식품영양학과)
정보통신대	33	장중혁(컴퓨터정보공학부)	이강현(전자전기공학부)
조형예술대	27	최영림(패션디자인학과)	박진우(산업디자인학과)
사범대	70	김익표(수학교육과) 박종근(지구과학교육과)	권순우(특수교육과) 임석희(지리교육과)
재활과학대	27	김환(작업치료학과)	김명권(물리치료학과)
성산교양대	2	박영식(자유전공학부)	
간호대학	11	강수진(간호학과)	
독립학부	12	여준호(AI학부)	

## 『대구대학교 교수회 통신』 제8대 제4호

---

발행인 : 양진오(의장)

편집인 : 차정호(부의장), 이가연(부의장)

교수회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교수학습지원관 1층 1101호

사무실 053.850.5753 팩스 053.850.5754

홈페이지 <https://prof.daegu.ac.kr>